

부록공지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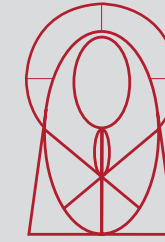
\*\* 성전보수기금 약정/납부 현황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반석회	2,000	29	박애순	500	57	오경숙	3,000	85	임소라	100
2	이스트브론스웍 구역	1,167	30	박재영	1,500	58	오진아		86	임영자	1,000
3	유스그룹	400	31	박정훈	1,500	59	오선아	2,000	87	장수지	1,000
4	성모회	5,000	32	박화성	1,000	60	오현아		88	장중현	400
5	Vesta-Oh LLC	5,000	33	방숙자	400	61	오석미	1,000	89	전광수	1,000
6	강식	1,200	34	배인경	500	62	오용운	2,000	90	정명숙	300
7	곽신규	1,000	35	백상헌	1,500	63	오현주 (부제님)	12,000	91	정진오	1,000
8	곽율리안나	200	36	백영숙	1,000	64	우성현	1,000	92	조순자	300
9	김도용	500	37	변상민	1,000	65	우영인	1,000	93	조인	1,000
10	김삼식	1,000	38	변상원	1,000	66	유병기	3,000	94	채희백	5,000
11	김성일	1,500	39	변태용	4,000	67	육순재	3,000	95	최영옥	1,000
12	김수완	5,000	40	서경호	1,000	68	윤석로 (부제님)	1,000	96	최영찬	2,000
13	김순옥	1,000	41	서정근	1,500	69	윤준희	5,000	97	최원준	1,000
14	김안나	1,000	42	성낙순	500	70	이광호	3,000	98	최승웅 (부제님)	5,000
15	김영필	2,000	43	성낙철	1,000	71	이기순	500	99	최진호	1,000
16	김정숙	300	44	성순영	500	72	이막동	500	100	최현지	2,000
17	김태경	600	45	성준엽	1,000	73	이문식	1,000	101	추승호	1,000
18	김진	1,000	46	손경진	300	74	이보현	1,000	102	토레스 은식	2,000
19	나채국	1,000	47	손영렬	1,000	75	이성문	1,000	103	하건철	1,000
20	나한복	1,000	48	손영수	1,000	76	이용문	2,000	104	한상철	1,000
21	문형근	100	49	손종철	3,000	77	이용범 (신부님)	2,500	105	한크리스토퍼	1,000
22	민병집	2,400	50	손흥구	1,500	78	이재구	1,000	106	허종	1,000
23	박규희	300	51	신준호	1,200	79	이재서	1,000	107	황분숙	500
24	박기호	1,000	52	안을봉	1,000	80	이종권	1,500	108	황태진	1,000
25	박덕화	500	53	안청자	500	81	이준원	100	109	익명 (1)	1,000
26	박동준	300	54	안현정	1,500	82	이호용	1,000	110	익명 (1)	100
27	박락준	2,000	55	양영길	1,000	83	임문수	500	111	익명 (2)	40
28	박병태	1,200	56	염기선	3,000	84	임성주	1,000	112	미국신자 (63)	93,900

약정금액: \$249,807.43/\$300,000 (83.27%), 납부금액: \$188,455.43/\$300,000 (62.82%)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5년  
11월 23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무엘기 5,1-3

# 화답송 시편 122(121),1-2,4-5(◎ 1 참조)



후렴.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라.

# 제 2독서 콜로새서 1,12-20

#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루카 23,35ㄴ-43

# 성가 입당 75 봉헌 220, 513 성체 175, 187 파견 73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성갑남(율리아나) - 유미선(클라라), 박정훈(베드로)가정
- 한석희(빈첸시오) - 한상철(빈첸시오)가족, 김순옥(율리아)
- 남상휘(마카엘) 조영옥(아가다) - 가족
- 박로철(아고보) - 민규란(엘리사벳)
- 조상님들을 위하여 이석종(스테파노) - 이용문(안드레아)가족
- 정문조(안드레아) 오화남 - 서현주(테레사)
- 임태영(유스티노)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신준호(빈첸시오)
- 김종호(베드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가족, 뉴욕 한인 그리스도 생활 공동체, 서현주(테레사), 박정훈(베드로)가정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 바다의 별 Pr.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허정(아나스타시아) - 맹순영(베로니카)
- 홍주연(안나) - 김성일(베드로)
- 성라파엘라를 위하여 - 정테레사
- 오주인(도마나) - 신준호(빈첸시오),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 우성현(스테파노) 이호용(프란치스코) 박정훈(베드로) 유미선(클라라) 신준호(빈첸시오) 가정을 위하여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 김태경(카타리나) - 사우스브런스윅구역
- 오용운(토마스) 가정을 위하여 - 신준호(빈첸시오)
- Luz Aida Niglioni 변인순(엘리사벳) - 은식(클라라)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218(130명)	
• 2차헌금.....	\$347	
• 교무금.....	\$950	
전광수(11~12)	곽신규(9~10)	이재규(7~12)
홍스텔라(10)	최위숙(11)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빵과 포도주 봉헌

- 11/23 맹 베로니카, 최 율리아나    11/30 채 쟈마, 주 엘리사벳
- 12/7 임안나, 토레스클라라        12/14 성낙순, 이막동
- 12/21 박애순, 박마리아            12/28 양영길, 양카타리나

★ 친교 봉사 일정

- 12/7 노스브런스윅                    1/18 럽거스                    2/15 먼로
-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윅    5/17 썸머셋
-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윅
- 9/20 피스브릿지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8) - 의무 축일

미사 시간/ 장소 : 오전 9시 / 대성당  
오후 7시 / 대성당 -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 오후 미사가 있습니다.

★ 허정 아나스타시아 자매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주신 교우분들께 이번주 감사떡을 준비해주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목회의

일시/장소: 11월 23일 미사후 / 친교실

★ 전례분과 월례 회의

일시/장소: 11월 23일 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레지오마리아에 연차 총 친목회

일시/장소: 12월 7일 (주일) / 친교실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공연

일시/장소 : 12월 14일 (주일) 오전10시 /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장소 : 12월14일(주일) /친교실(대회의실)

★ 성탄을 맞아 성당 주변 라이트 설치에 봉사해주실 분은 사무장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 방법 : 우편 또는 이력서(동영상 강의) 중 선택
- 접수/마감 : uus.pauline.or.kr / 2026년 1월31일

★ 요셉회와 함께하는 2026년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단 모집

일시: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4박5일  
지도신부: 본당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문의: 곽 엘리사벳(908-420-8386), 이서형 요안나(732-609-2904)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 제1독서 사무엘기 5,1-3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콜로새서1,12-20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루카 23,35L-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위령 성월 기도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